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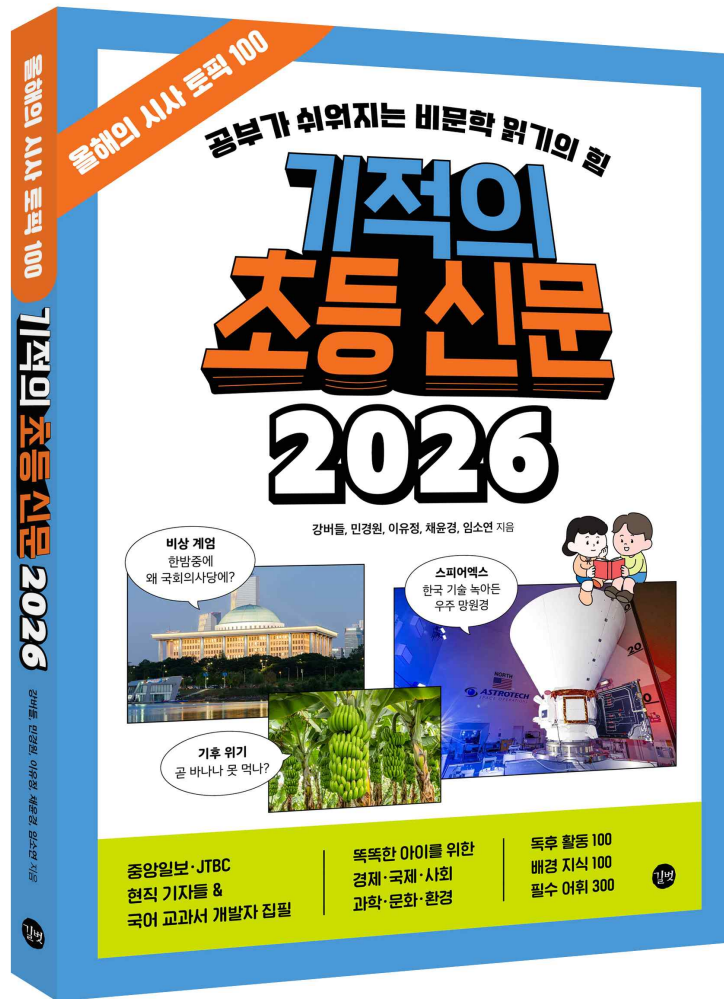


독자의 1초를 아껴주는 정성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56 대표전화 (02)332-0931 팩스 (02)322-9179 홈페이지 www.gilbut.co.kr

담당자 자녀교육서팀 황지영 02-330-9829 jyhwang@gilbut.co.kr

공부가 쉬워지는 비문학 읽기의 힘 기적의 초등신문 2026



지은이 | 강버들, 민경원, 이유정, 채윤경, 임소연

발행일 | 2025.10.31. 분야 | 어린이(초등 3~5학년) 판형 | 185x250 형태 | 무선 페이지 | 256쪽

정가 | 19,800원 ISBN 979-11-407-1631-9 (73300)

■ 책 소개

완전히 새로워진 ‘올해의 시사 토픽 100’

중앙일보·JTBC 현직 기자, 국어 교과서·문제집 개발자 집필

“좋아하는 그림책, 만화책만 읽어도 될까요?”

‘아이가 책을 읽기는 하지만 좋아하는 분야만 파고드는데 괜찮을까요?’ ‘그림책이나 만화책만 읽는데 다른 글도 읽으면 좋겠어요.’ ‘아직 국어 영역 문제집을 풀기는 이쁜데, 비문학 글은 골라 읽고 싶어요.’ 아이들 읽기 능력이 화두인 시대, 《기적의 초등 신문 2026》이 완전히 새로운 100가지 이야기를 담고 출간됐다. 이 책은 독서 편식하는 초등학생, 어려운 글 읽기를 힘들어하는 초등학생을 다양한 주제의 비문학 읽기로 안내하는 책이다. 국제부·정치부·사회부·문화부·경제부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한 현직 기자들과 국어 교과서·문제집을 만들어 온 개발자가 함께 쓴 책으로, 올해 초등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회 이슈를 다룬 기사 100개와 학습으로 연계되는 독후 활동까지 담았다.

저자들은 주요 언론사인 중앙일보·JTBC에서 활동 중인 기자들과 국어 교과서 개발자인 한편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내 아이와 함께 읽고 싶은 유익한 뉴스’를 선정해 집필했다. 기사는 경제·국제·사회·과학·문화·환경으로 나뉘어 아이들이 흥미롭게 읽을 만한 주제, 교과 과정과 연계되는 주제, 세상 읽는 눈을 키워주는 지식을 담은 주제 등 다채로운 사건들을 다루기에 초등학생 독자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끝까지 읽을 수 있다. 긴 글 읽기를 어려워하는 초등학생을 위해 하루 10분 정도만 투자해도 읽어낼 수 있는 분량으로 집필했다. 새로운 어휘를 습득할 수 있도록 쉬운 단어만 쓰지 않고 어려운 어휘를 3~4개 섞어 썼고 어휘 풀이를 별도 수록했다. 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간단한 독후 활동도 담았다. 비문학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는 초등 3~5학년 읽기 수준과 어휘력에 맞춘 것도 《기적의 초등 신문 2026》의 특징이다. 아이들이 글 하나를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생각과 지식을 한층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기사와 연계된 배경지식도 안내했다. 하루 1장, 하루 10분으로 비문학 읽기 습관을 제대로 쌓을 수 있을 것이다.

■ 출판사 리뷰

요즘 아이들 어휘력·문해력 예전보다 떨어진 게 사실일까요?

국어 영역과 영어 영역 지문,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비문학 읽기 근력, 지금부터 키워주세요

최근 수능 모의고사에서 다루는 비문학 지문은 인공지능, 국제관계, 문화콘텐츠, 환경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이슈들이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사회 이슈는 새로운 문향을 출제해야 하는 수능에서는 빠지지 않고 다루는 주제다. 또한 비문학 지문의 난이도도 예전과는 다르다. 아이들 어휘력, 문해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화두지만 아이들이 읽고 소화해야 할 글의 난이도가 월등히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기적의 초등 신문 2026》은 교과서 밖에서 출제되는 어려운 글을 읽고 해석해야 할 요즘 아이들이 처음 시작하기 좋은 비문학 도서다. 아이를 둘러싼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생생한 이슈를 다뤄서 생생하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하다. 한편 주요언론사인 중앙일보와 JTBC에서 오랜 기자 생활을 하며 버린 간결하고 논리적인 글쓰기가 몸에 밴 기자 넷과 국어 교과서와 문제집 개발자로서 교육 현장 선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이끌어 온 개발자가 힘을 합쳤다. 초등학생의 읽기 수준을 고려한 날카로운 비문학 글이다. 앞으로 급진적으로 어려워지는 글을 읽고 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소 읽던 것보다 낮설고 수준 높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고려해 초등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단어를 기사당 3~4개씩 섞었다. 아이는 어려운 단어가 포함된 글을 읽으며 단어를 유추하는 능력, 독해력을 키울 수 있다.

“아이의 꿈은 자신이 아는 세계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경제·국제·사회·과학·문화·환경

똑똑한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최신 이슈를 다뤘습니다

양질의 글도 중요하지만 흥미가 없으면 끝까지 읽기 힘들 것이다. 《기적의 초등 신문 2026》은 초등학생들이 흥미를 보일 만한 섹션이자 교과 과정과도 연계되는 경제·국제·사회·과학·문화·환경 6개 섹션을 다룬다. 책에 실린 각각의 기사는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하루 1개씩 읽을 수 있지만, 차근차근 읽다 보면 점차 관련 분야의 지식이 확장되도록 주제를 유기적으로 구성했다. ‘은행이 사라지고 있어요!(스마트 금융)’ ‘스마트폰, 혹시 내 얘기 듣고 있니?(개인 정보 문제)’ ‘SKT, 내 유심 정보가 유출됐어요(기술의 양면성)’가 그 예다. 한편 ‘요즘 10대들, 외모가 고민이에요’ ‘인형 뽑기 너도 해 봤니?’처럼 요즘 아이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삶을 반영한 기사, ‘영화도 음악도 성공! <케이팝 데몬 헌터스>(콘텐츠 산업)’ ‘러브버그 급증, 산 까맣게 뒤덮어(환경 문제)’ 등 아이들의 관심사와 연결되어 있는 이슈 등을 다뤄 흥미를 붙잡았다.

아이의 꿈은 자신이 아는 세계보다 더 클 수는 없다. 어떤 분야든 조금이라도 알아야 흥미가 생기고 꿈도 키울 수 있다. 《기적의 초등 신문 2026》은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넓은 세상을 알려주는 책. 많은 이야기를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현재 AI 기술은 어디까지 왔는지, 미국과 중국이 자꾸 경제 문제로 부딪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통령 선거 방식이 나라마다 어떻게 다른지 등을 아는 것이 당장은 불필요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과학의 현주소,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방향, 정치가 하는 역할 등을 안다면 아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할 일을 찾고 꿈을 키우는 바탕이 성장할 수 있다. 이 책은 하루 1장, 하루 10분으로 비문학 독해력을 키워 줄 뿐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눈을 키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 책의 특별한 점

- V 현직 기자들이 고르고 쓴 기사로, 정확성·균형감·간결함을 갖췄습니다.
- V 국어 교과서 개발자가 초등 교과에 맞춰 다듬었습니다.
- V 경제·국제·사회·과학·문화·환경 다양한 분야의 글로 어휘력과 문해력을 길러 줍니다.
- V 각 분야 필수 어휘와 개념을 담았습니다. 어려운 글도 술술 읽을 수 있습니다.
- V 다양한 배경 지식을 수록했습니다. 한 발짝 더 깊이 지식을 확장시킵니다.
- V 글마다 독후 활동을 수록했습니다.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천의 글

“미래 1등급 생기부로 이끄는 초등 신문”

신문 기사를 읽는 것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채우고 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해 줍니다. 또한 차곡차곡 쌓인 시사에 대한 감각은 수행평가·면접·논술 등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이 됩니다. 하지만 배경 지식이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신문이 어려울 수 있어, 교과 수준에 맞춘 어휘와 흥미로운 주제를 담은 《기적의 초등 신문 2026》이 좋은 대안이 됩니다. 방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 이 책을 부모와 아이가 함께 매주 꾸준히 읽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학습 효과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간단한 추가 자료 조사까지 해 볼 수 있다면 미래 1등급 생기부를 만들 수 있는 준비는 반쯤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수미 · 논술화랑 대표, 《성적 초격차를 만드는 독서력 수업》 저자

■ 저자 소개

강버들

JTBC 기자. 사람 사는 이야기가 궁금해 언론정보학과 사회학을 공부했다. 그리고 기자가 되었는데도 인간사가 좀처럼 이해가 안 돼 십수 년째 질문하고 있다. 우주와 과학 이야기를 동경한다. 모르고 어렵고 밥벌이와 무관해서 좋아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많이 품고 살길 바라며, 아이와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와 책을 함께 본다.

민경원

중앙일보 기자. 대학에서 중어중문학과 신문방송학, 대학원에서 문화콘텐츠학을 전공했다. 드넓은 세상이 궁금해 곳곳을 쏘다녔다. 덕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 묻고 듣고 쓰는 것을 업으로 삼게 됐다. 사람과 세상을 잇는 숨은 이야기를 발굴할 때 희열을 느낀다. 문화부에서 오래 일하며 음악과 영상에 파묻혀 살았다. 현재는 페어런츠팀에서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싶은 양육자를 위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

이유정

중앙일보 기자.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 기자가 되어 사회부 법조팀, 탐사팀, 국제부를 거쳤다. 현재 외 교안보부에서 국방·통일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야기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고 늘 믿고 있다. 바쁜 아내이자 엄마, 사랑받는 둘째 딸, 성실한 직장인. 영화관에서 팝콘과 제로콜라를 들고 새로 개봉한 영화를 보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여긴다.

채윤경

JTBC 기자. 정치외교학과 경제학을 전공했다. 기자가 되어서는 사회부와 정치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지금은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하고 있다. 국밥을 제일 좋아한다. 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다. ‘모르면 읽고, 알아도 읽자. 그럼 길이 보인다’고 믿는다.

임소연

국어 교과서·문제집 개발자.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출판사에서 줄곧 국어 교과서와 문제집, 어린이 책 만드는 일을 했다. 하루가 다르게 부쩍부쩍 자라는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책을 만들 고자 한다.

■ 차례

시작하며_ 왜 이 책이 탄생하게 되었나요?

지식이 쑥쑥 자라는 5단계 활용법

Section 1. 경제

[경제 기사 읽을 때 필수 어휘 15]

경제 001 테슬라 꺾은 중국 전기차의 비밀은?

경제 002 석유값은 왜 매일 달라질까요?

경제 003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경제 004 나도 세금을 낸다고요?

경제 005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우리도 받았어요!

경제 006 동네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가 있다?

경제 007 은행이 사라지고 있어요!

경제 008 스마트폰, 혹시 내 얘기 듣고 있니?

경제 009 SKT, 내 유심 정보가 유출됐어요!

경제 010 비트코인 1개가 1억 7000만 원?

경제 011 만 원으로 점심을 못 먹는대요!

경제 012 순살 치킨이 비싸질 거라고요?

경제 013 다이소 화장품, 왜 인기 많을까요?

경제 014 망고 빙수, 비싸도 잘 팔려요

경제 015 나도 ‘당근’ 할 수 있나요?

경제 016 왜 배민과 티빙이 손을 잡았을까요?

경제 017 폭염 속, 몰캉스가 떴다!

Section 2. 국제

[국제 기사 읽기 전 알아두기 - 나라 10]

국제 001 우리나라는 과연 선진국일까요?

국제 002 전 세계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불닭볶음면!

국제 00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년째 접어들어

국제 004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파는 나라는?

국제 005 이란 핵 시설 제거한 트럼프

국제 006 다시 살아나는 아르헨티나 경제

국제 007 관광객들로 몸살 앓는 일본

국제 008 중국, 공무원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어요

국제 009 트럼프 관세 전쟁, 어디까지일까요?

국제 010 APEC, 경주에 특별한 사람들이 모인대요

국제 011 위기의 하버드 유학생들

국제 012 미국 공식 언어, 영어가 아니었어요?

국제 013 새로운 교황이 탄생했어요
국제 014 개를 호랑이처럼 염색했다고요?
국제 015 구글 지도, 우리나라 길은 왜 헤맬까?
국제 016 미국 Z세대는 틱에 돈을 덜 쓴다?

Section 3. 사회

[사회 기사 읽을 때 필수 어휘 15]
사회 001 비상계엄이 뭐예요?
사회 002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결정!
사회 003 나라마다 대통령 뽑는 방법이 달라요
사회 004 대통령은 어디에서 일하나요?
사회 005 포괄적 차별금지법, 18년 만에 제정될까?
사회 006 ‘쉬었음’ 청년이 늘고 있어요
사회 007 미래 직업, ‘네오 블루칼라’가 인기예요
사회 008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됐어요
사회 009 이제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못 쓴다고요?
사회 010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있다고요?
사회 011 한밤중에는 스쿨존에서 과속해도 될까요?
사회 012 인형 뽑기, 너도 해 봤니?
사회 013 요즘 10대들, 외모가 고민이에요
사회 014 우리나라는 부유한데 왜 행복 순위는 낮죠?
사회 015 세계 최초, 루게릭병 전문 요양병원 생기다
사회 016 크보빵은 안 먹겠어요!
사회 017 무안 공항 비행기 추락 사고 진실은?

Section 4. 과학

[과학 기사 읽을 때 필수 개념 12]
과학 001 희토류가 뭐예요?
과학 002 소행성, 달에 충돌할 수 있다고?
과학 003 한국이 함께 만든 우주 망원경, 스피어엑스!
과학 004 우주 다녀왔더니 폭삭 늙었어요
과학 005 3D 프린팅, 우주선까지 만든다고요?
과학 006 챗GPT가 그린 그림이 문제라고요?
과학 007 챗GPT 위협하는 중국 답시크
과학 008 내 방에서 노트르담 대성당 볼 수 있어요
과학 009 유전자 가위의 두 얼굴
과학 010 내 몸 지켜 주는 작은 생명체, 미생물
과학 011 솜폼 때문에 ‘뇌 썩음’ 진짜일까?
과학 012 아침으로 시리얼, 이제 그만!

과학 013 당류 제로 과자는 먹어도 좋을까요?
과학 014 남을 도우면 내 몸이 건강해져요
과학 015 귀찮은 초파리, 어디서 생겨나나요?
과학 016 일기예보는 왜 자주 틀릴까요?
과학 017 재생에너지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라요?

Section 5. 문화

[문화 기사 읽을 때 필수 상식 9]

문화 001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토니상 6관왕!
문화 002 K클래식, 세계 최고로 우뚝
문화 003 영화도 음악도 성공! 〈케이팝 데몬 헌터스〉
문화 004 영어 사전에 ‘달고나’가 실렸어요
문화 005 〈흑백요리사〉 인기 편의점에도!
문화 006 미쉐린 가이드, 새로운 3스타 탄생
문화 007 버추얼 아이돌, 이제 낯설지 않아요
문화 008 ‘파산평’이 ‘대박평’으로 변신했다고요?
문화 009 초등학생,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은?
문화 010 인기 최고 ‘인상주의’, 처음에는 혹평
문화 011 국립중앙박물관 굿즈, 없어서 못 팔아요
문화 012 텍스트힙 열풍, 어디서 시작됐을까?
문화 013 ‘러닝 크루’, 달리기 인기 최고조
문화 014 프로야구, 역대 최다 관중 동원!
문화 015 극장에서 낮잠 자실 분 구해요!
문화 016 ‘먹방’ 보는 것만으로도 큰일?
문화 017 ‘제주어’ 사라질 위기에 처했대요

Section 6. 환경

[환경 기사 읽을 때 필수 어휘 15]

환경 001 4월에 벚꽃비와 눈이 함께 내렸어요!
환경 002 대형 산불, 왜 이렇게 많이 날까?
환경 003 바나나를 못 먹을 수 있다고요?
환경 004 러브버그 급증, 산 까맣게 뒤덮어
환경 005 예쁜 꽃, 왜 뽑아 버리는 거예요?
환경 006 모기가 살기 더 좋아졌다고요?
환경 007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지켜 주세요!
환경 008 코뿔소가 왜 거꾸로 매달려 있지?
환경 009 까마귀가 사람을 공격한다고요?
환경 010 먹다 남은 약,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환경 011 바닷속 산호초는 왜 하얗게 죽었을까?

환경 012 페트병 생수, 열리지 마세요!

환경 013 텀블러와 에코백, 환경에 도움 되나?

환경 014 ‘전자 쓰레기장’이 되어 버린 태국

환경 015 ‘우주 쓰레기’ 지구로 떨어져요

환경 016 생명의 땅으로 다시 태어난 DMZ

답안